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제36권 51호(다해) 2016년 11월 20일

[묵상]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마태 20. 25-28)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언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생)성제시카 엘리사벳
주일 학생	(연) 박찬호 & 서인현 스테파노, 이중갑 부르노 & 김홍운 요셉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최창출 스테파노, 박재현 야고버 & 문병혁, 신선미 루시아, 이석중 & 박남길, 이범창 & 박을당, 낙태이들의 영혼, 홍관 요셉, 권중호,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 이효희 마리아 & 신현태, 최영 요셉, 박영준 안토니오, 강안토니오
	(생)손석 스테파노 & 손두화 스테파니아, 박정미 클라라, 홍석인 체칠리아, 권순길 세실리아, 김현오 니콜라오, 김앤디 안드레아, 티파니 권 요세피나,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라드비나, 황윤재 베드로가정, 최기남 야고버 & 최옥희 테레사, 최솔 세실리아, 이재숙 테레사 & 이혜선 안젤라, 박완철 다니엘 & 박효진 안젤라, 이미예 카타리나, 현영 올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하(Samuel) 5,1-3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기 뻐 - 하 며 주 님 의 집 으 로 가 리 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1,12-2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복 음 루카(Luke) 23,35-43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7	207	207
봉헌	259	259	268
성체	306	306	279
파견	230	230	238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1. 분단 시대의 교회

1. 분단 시대 출현과 교회(1945~1953년)

1-3. 한국 전쟁과 교회

전쟁을 전후한 기간에 체포되어 피살되거나 행방 불명된 한국인 성직자는 40명에 달하는데, 당시 한국인 성직자 144명 중 27.8%에 이르는 비율이다. 또한 외국인 성직자와 수도자가 거의 체포되었는데 그 숫자는 153명으로, 이들 가운데 96명은 전쟁이 끝난 다음 생존하였다. 그러나 28명이 수감 중에 옥사했으며, 17명은 피살되고, 12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피살자, 옥사자, 행방불명자가 57명에 이르러 체포된 외국인 선교사와 성직자 가운데 37.3%에 이르렀다. 한편 공산군이 점령한 지역의 평신도 지도자들도 연행되거나 피살되었다. 경기도 오산에서는 교회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아원의 전쟁 고아들이 UN군 비행기의 폭격으로 일시에 50여 명이 죽기까지 하였다. 전쟁에 따른 이와 같은 인명 피해는 당시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하였다.

2. 한국 교회의 성장(1953-1962년)

2-1. 남한 교회의 전쟁 극복

1953년 휴전으로 남북한 교회의 분단은 기정 사실로 굳어졌다. 휴전으로 사회가 점차 안정되자 남한의 교회는 파괴된 교회를 복구하고 선교 활동을 재개해 나갔다. 전쟁으로 발생한 인적 손실은 외국의 선교사와 수도회의 지원으로 보완해 갔다. 외국 교회의 지원은 교회가 입은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미국의 가톨릭 구제회(NCWC)와 독일의 미제레올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부인회 등에서 한국 교회 재건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

휴전 직후 남한 교회는 매우 높은 신자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1953년 당시 남한의 신자 수는 대략 17만 명 정도였다. 휴전 이후 1950년대의 연평균 신자 증가율은 16.61%에 이르렀다. 특히 1958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4.18%포인트의 신자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961년에 이르러 신자 수는 5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다음 해에 신자 수 50만 명을 돌파한다. 당시 교세 증가 현황은 다음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속>

<표 6> 현대 한국 교회 현황(1945-1962년)

연도	신자 수	전년대비 증가율 (%)	복음수	성직자		수사		수녀		신학생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소	대
1944	179,114	(-2.26)	163	134	107	13	44	332	50	?	?
1949	157,668	(-12.28)	131	148	60	?	?	385	16	106	78
1954	189,412	13.78	142	190	61	?	?	489	30	?	?
1955	215,554	13.80	152	197	91	?	?	650	53	?	?
1960	451,880	8.34	258	246	202	66	57	721	111	448	267
1962	530,227	7.67	275	296	250	55	43	1,099	135	360	314

왕과 나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 약간은 멍하니 생각을 하거나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사람, 목주기도를 바치는 사람 등을 자주 보았습니다. 요즘의 지하철 풍경은 천편일률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 가지 모습입니다. 열 명 중에 여덟이나 아홉은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안에서만이 아니라 거리에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걷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단단히 매여 사는 것이 아닐까,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에 열중하듯이 성경과 신심서적, 기도에도 열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커야겠지요. 관심과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게 마련이니까요.

노예가 되려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주님의 '노예'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여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충직한 주님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의미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진정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 충성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신이 섬기는 왕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으로서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뭙니다.(제2독서)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유유자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무관심하기 쉽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목자로서 성실하게 백성을 보살폈듯이(제1독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끝에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분입니다.(제2독서)

십자가상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빈정거림과 군사들의 조롱을 묵묵히 참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복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세속의 권력자들처럼 완력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며 세도를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큰 인내로 우리의 거칠음을 견뎌주시며, 한없는 자비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축일이 흔쾌히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님! 당신을 닮아 사랑과 인내, 자비로 이웃과 세상을 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어떤 외로움

외로움을 느끼는 강도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부러워 하느라 몹시 바빴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느라 고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헤집느라 외로움 통이 없었습니다.

치매 걱정은 좀 덜었지만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병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때론 외로움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을.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데레사	강혜원 아네스
재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재물봉헌자			토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위령성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위령의 날 (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회생을 바친다.

◆ 제34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 미사

- 일시: 11월24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점심: 본당 제공
- 행사당일 오전 10시까지의 공원 입장 무료, 이후는 본인 부담으로 차량 당 \$ 8.00 입니다.(Carpool 을 부탁드립니다.)
- 2부 행사: 성당 별 성가 경연대회
- 장소: 엘 도라도 파크 El Dorado Park, East
75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
- 미사집전: 호세 고메스 대 주교님
- 주관: 성 그레고리 천주교회
- 이날 본당 평일 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 남가주 추수감사절 성가경연대회

- 오늘주일 (20일) 추수 감사절 성가 경연대회 연습 시간을 참가자들의 요청과 좀더 많은 참석을 도모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후 바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 20일 1시 시작
- 곡명: I Will Follow Him
- 문의: 김용 스테파노 ☎ (310)926-2248

◆ 대림특강

- 일시: 대림 1주 (11월27일),
대림 2주 (12월4일) 11시 미사 중
- 장소: 성전
- 주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
- 강사: 양성옥 바오로 신부(성 김대건 안드레아성당)

◆ 요셉회 11월모임

- 일시: 11월 20일 (오늘주일), 11시 미사 후 강당
추수감사절 특별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부동반 참석 바랍니다.
- 연락처: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주일학교 교사 & 배론 청년 일일 피정

- 일시: 11월 20일 주일, 오후 2시~8시
- 장소: St. Mary's Catholic Church(지도: 김 마티아스 신부님)

◆ 주일학교 Thanksgiving 행사

- * Clash of Cans, 캔 푸드 모으기*
- 11월 한달 동안 기부된 모든 canned food를 LA Food Bank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 추수 감사절 연휴 휴강

- 다음 주일(27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평소대로 봉헌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20일: * PV1,4반: 북어국(\$3)
* 주일학교: 주먹밥 (킨더,1학년)
- 11월 27일: * 토동2,3반: 짜장밥(\$3)
* 주일학교: 추수감사절 연휴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권태만 김병조 김상규 김상기 김성택 김옥찬 김원호 김윤진 김정엽 김현숙 박광자 박정자 배기엽 서영주 신경훈 안태갑 이민상 이영자 이인석 이일길 이종필 이태욱 정병훈 홍인표 황철수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2,530	성전헌금	구자운 권태만 김병조 김상기 김윤진 김정엽 김현숙 박광자 신경훈 안태갑 이민상 이인석 이일길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850
주일미사헌금 :\$2,442		감사헌금 : \$135(박수지)	

◆ 주일학교 밴드부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밴드부에서 학생 미사 시간에 활동할 밴드 단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음악에 관심이 있는 주일학교 9학년 이상 학생
- 연락처 : 밴드부 또는 주일학교장

◆ 한국학교 TA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한국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우며,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TA를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SAT 시험을 마친 학생으로 9학년 이상.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이메일 : 103skccks@gmail.com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cks@gmail.com

☺ 서로 인사 합시다. ☺

남가주 소식

◆ 제 2회 주사위 정기공연

“주사위란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의 약자로 주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 모인 남 가주 내의 천주교 생활 음악 단체입니다.

- 일시 : 11월20일(주일) 저녁 5시
- 지도 : 성 아그네스성당 최대제 로베르토 주임신부
- 장소 : 성 아그네스성당 회관 (별문과 아담스)
1451 Dana St. LA, CA 90007

◆ 제 36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6년 11월27일(주일) 낮 1시~5시
28일(월)저녁 6시~10시 중 택일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 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E-MAIL : ignhanddrip@gmail.com

◆ 우편 또는 동영상 강의를 이용한 성경공부

- 과정 : 구약과 신약 입문과정(2년)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분
- 접수 : 2016 11월~2017년 1월말
-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
- 원서 교부처 : 바오로의 딸 서원, 성 바오로 서원
<http://uus.pauline.co.kr> 인터넷 다운로드
- 우편성경공부 : uus@pauline.or.kr
- 이지러닝 성경공부 : e-learning@pauline.or.kr

노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베히틸다 713-4926	지정수 마태오 11/16(수)오전11시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김정웅 요한 11/12(토)오후6시30분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1/18(금)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11/19(토)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형삼 요셉 11/12(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1/8(화)10/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11/18(금)7/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11/15(화)오전11시성당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김희연 루시아 11/19(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기호 스테파노 11/6(일) 오후5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11/12(토)오후7시 성당2층 룸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11/11(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경주 요아킴 11/11(금) 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박은혜 클라우디아 11/13(일)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11/8(화)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저에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바로 펠릭스, 6살인 제 아들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기도 하죠. 행복, 행운이란 뜻의 펠릭스란 세례명은 임신 중 재능기부를 갔다가 우연히 뱃속에 된 신부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펠릭스는 이름처럼 수월하게 세상에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가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되는 일엔 연습이 없으니까요. 처음 해 보는 일이라 항상 부족한 것만 같고 정답도 없으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이에게 자아가 생기고 성장하면서 또 세상과의 만남에서 이런 저런 상처들이 생기고 아픔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은 매우 아프지만 그건 아이도 나 자신도 성장하는 과정이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크면서 생기는 고민들, 상처들을 보듬어주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의 상처받은 작은 나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내면에 숨겨놓았던, 아주 어렸을 적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과거의 나의 상처도 이해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상처받았던 내 자신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더 쇼크’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든 아니든 모두가 보셨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을 부정하고 싫어하면서도, 마치 유전형질을 물려주는 것처럼 육아의 태도 또한 답습하여 같은 상처가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선 말미에 그 부정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자신 있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행히 전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것처럼 과한 트라우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저희 부모님도, 지금의 저도 주님처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성모 마리아님처럼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한계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최고의 양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단순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당신 사랑으로 펠릭스를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신 성모 마리아를 닮게 하소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부는 펠릭스를 대할 때 우리가 받아왔던 훈육 방식에서 조금은 벗어나 주님의 사랑으로 펠릭스를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펠릭스는 매일 밤마다 기도 속에 잠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녁기도였지만 지금은 꼭 기도를 들으며 자려고 합니다. 그 포근함을 아는 게지요. 펠릭스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주님과 일치하여 빛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치유시켜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주님의 선물 펠릭스. 주님의 사랑을 재현하고 실천하게 하는 나의 행복이자 행운입니다.

◆ 정수영 그라시아 / 배우

[길을 찾는 그대에게]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어째서 죄악이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가요?

☞교회가 오래도록 고민해 왔던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군요. 답은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의 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진실과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총뿐이라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끝없는 질문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인간되심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구체화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모든 인간을 악에서 구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새로이 결합시켰습니다. 이 심오한 신비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 없이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와 더불어 구원하신다.”고 설명했는데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한 당신의 구원 사업을 펼치시지만 강요하지 않고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지를 거부한다면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가 하느님의 무능이나 하느님의 처벌이라는 생각은 그릇됩니다. 인간은 선 자체이신 하느님을 향하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망각하고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악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하여 선을 지향해야 하는 본연의 존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성찰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죄에 갇힌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찾을 때 구원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 장재봉 신부/ 선교사목국장

돌아오지 못할 길

먹이를 찾던 물고기 두 마리가 먹음직해 보이는 지렁이를 발견하였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말했다.

“저 지렁이가 보이지? 저건 낚싯바늘에 꿰어 있는 거야. 낚싯바늘은 낚싯줄 끝에 달려 있지. 그리고 낚싯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낚싯대는 사람이 쥐고 있어. 우리가 저 지렁이를 삼키면, 우리 입이 바늘에 걸려 결국 후라이팬에 얹혀지는 신세가 되고 말 거야.”

그러자 다른 물고기가 말했다.

“하하하!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바로 그 이야기구나. 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믿지 않아. 후라이팬에 얹혀졌다가 다시 물 속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밝혀준 이가 어디 있어? 자네가 저 지렁이를 먹지 않겠다면 내가 먹어치우겠네.”

그러더니 그 물고기는 지렁이를 삼키고 후라이팬에 얹혀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인간이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옥에 갔다 와서 지옥에 대해 증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은가!”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가톨릭 굿뉴스 [당신을 바꿀 100가지 이야기 중에서]

의로운 사람,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회) 의원 중에서도 덕망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란 유다인의 최고기관으로 재판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평민 가문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백성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있던 터에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드러나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열두 제자의 명단 속에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7,45-57

제자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마음과 정신과 생활까지 본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위의 평판이 좋은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사형선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번 갈등을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누구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9,28-38

요셉은 사람을 시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게 했습니다. 시신이 내려지자 제일 먼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주위의 남아있는 여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가지고 간 고운 아마포로 예수님을 감싼 다음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요셉뿐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름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9,39-42

사형수의 장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요셉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가버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켰던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 약속과 신의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세태 속에서 더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태아 출신으로서 ()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카 23,50-51)

그 뒤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요한 19,38)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성인말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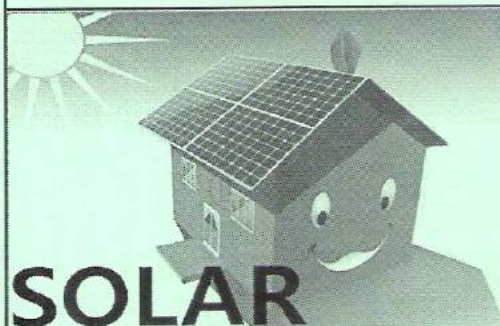
- 성 예로니모 -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 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재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3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 캐더링 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지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빌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